

**대한수의사회
창립60주년 기념사업 및
미래비전 선포**



우리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종합학술대회' (대회장 : 정영채회장, 조직위원장 : 이각모수석부회장)를 개최하고,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수의 60년사'를 발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수의관련 6개 학회 및 단체에서 참여하고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 이승근)에서 주관한 종합학술대회를 실시하였고, 오후 4시부터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이 진행되었다.

종합학술대회에는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의,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전통수의학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가 참여하여 각각 학술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우리회 학술홍보국제협력위원회 주이석부위원장(검역원 질병진단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김덕수수물놀이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차관, 한나라당 이인기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행사를 축하하였으며, 우리회 정영채회장의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진행된 '수의사의 미래' 비전선포식에서는 1) 수의공중보건의 미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원장), 2) 수의업무체제의 미래(국립한경대학교 배상호초빙교수), 3) 수의임상의 미래

(한국동물병원협회 이승근회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만찬에서는 중앙대 음악대학 현악앙상블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창단 베테글리의 축하공연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우리회 정영채 회장은 비전선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대한수의사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사진

받는 수의사, 국민과 함께하는 수의사, 국민을 위한 수의사가 되어, 5000년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21세기 첨단 수의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가발전과 인류 사회의 번영을 이뤄내자”고 강조하였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한국수의 60년사’(편찬위원회 고문 : 신광순, 위원장 : 최철순)는 지난 1998년 발간된 ‘한국수의 50

년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10년간의 수의역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22명의 집필 위원이 참여하여 998페이지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10월 11일(토)에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로 전남 영암 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대한수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에 따른 대(對) 국민호소문 발표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은 우리 수의계는 물론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가

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의 증폭과 미국산 쇠고기 및 BSE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 등 우리나라 전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심한 몸살을 앓았다. 우리 수의계도 우리 수의사들의 전문영역으로 많은 수의사들이 파동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상반된 입장의 표출 등으로 조기에 우리 수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회 회장단 및 지부장 연명으로 대(對) 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안과 사회혼란 나아가 국론의 분열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일만여 우리수의사는 미국산 쇠고기 등 축산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호소하오니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



의 이해와 동참이 있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과 연관되는 vCJD에 대하여 각각의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질병이 그러하듯이 BSE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 외적으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와 BSE는 감염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개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대한 위험성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식품안전정책의 수행은 그 자체의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안심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되는 식품은 그 생산과정과 가공유통 단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 더욱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수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식탁에 대한 안심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에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문제점

첫째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점과,

둘째는 BSE에 대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연구수준과 정책지원수준이 미흡하여 안전과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점,

셋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심정책의 수행이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우리의 요구와 해결방안 제시

미국정부에 대하여;

호혜 협력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심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에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정부에 대하여;

첫째,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일방적인 제시나 지시로 정부안을 받아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의 해소와 검역주권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도축검역관의 미국현지 도축검사 참여와 또 최근 O157검출로 인한 대규모 리콜과 결핵 문제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양국 전문수의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수입중단과 도축장 및 소 사육시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 식탁의 안전을 위하여 가시적인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과 전문 인력의 양성 보강할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

■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으로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함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학을 상식과 여론으로 해석하고 무력이나 권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 과학이 이들과 영합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간 정부가 노력해온 점을 이해하며 앞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수의사는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전문지식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축산식품의 안전과 원산지 표시 등 국민의 안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7월

(사) 대한수의사회

AI 발생으로 상재화 우려



2008년 4월 1일 국내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HPAI)는 5월 16일까지 총 33건이 발생하였고, 종계, 산란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육용오리와 토종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소규모 중간 판매상인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조류 매매시장으로 전파되었고, 특히 서울지역 관상용조류에서의 발생은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

이번 전파의 특성 상 초기발생 당시 이동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초래하였다. 그 후, 이러한 감염 경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시점부터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현재 통제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감시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감염동물이 잔존과 유통의 우려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도 고병원성 AI(HPAI)가 연중 발생하고, HPAI가 연중 발생하는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올해의 봄철 발생 예에서 보듯이 연중 발생할 위험성

이 상존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겨울철 특별 방역대책에서 연중 상시방역대책으로의 정책적 전환하였고, 이를 위한 조기검색체계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등 각종 방역제도 및 대책의 대폭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한편, H5N1의 병원성은 닭에 대한 병원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 여부를 결정하므로 인체에 대한 고병원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해 고병원성 AI를 일으킨 H5N1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이 2,3,2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조기근절에 실패하여 동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처럼 토착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이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는 추후 조기검색에 의한 조기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방역체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신고나 진단에 의한 수동적 예찰보다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 검사, 오리농가 및 방사하는 토종닭 농가와 재래시장 조류에 대한 정기적 검사 등 능동적 예찰체계로 전환하여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검색하여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도축장 출하전 가

금농장의 AI 검사 의무화, 검사조직의 강화, 중앙과 지방방역조직의 일원화, 닭 도축장 검사원 공영화 조기실시, 자가도축 금지, 중앙차원의 초동방역단 설치와 철저한 이동통제 방안 구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IPVS 유치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인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 강화순)에서는 한국양돈임상과 한국양돈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속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 22일에서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20회 IPVS(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세계양돈수의사회)총회에서 2012년 제22차 대회를 대한민국인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유치를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양돈수의사회(IPVS)는 196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세계 각국의 양돈과 이와 연관된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생산자 그리고 관련업계 인사들의 학술·기술·정보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약 500명이었던 회원 수가 2006년에는

100여개 회원국에 약 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대륙을 바꾸어가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12년 IPVS 총회의 유치는 한국유치를 위하여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 약 2년전부터 인적·물적교류 등의 치밀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는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대한양돈협회 김동환회장, 대한수의학회 이문한이사장 등 우리나라 양돈 및 수의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행사유치를 위하여 조력해 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관계자, 양돈수의사회 회원 등 약 150여명의 대규모 참가단을 구성하여 혼연일체된 유치활동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2~3회 정도의 도전으로 유치해왔던 총회를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는 신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유치성공과정에서 드라마틱(1차 투표에서는 다른 유치신청국인 멕시코에 뒤졌지만, 2차투표에서 역전)하여 참가단의 기쁨이 배가되었으며, 그 날의 감동을 성공개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한다.

한편, 지난해 유치에 유치에 성공한 2011년 WSAVA(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총회에 연이은 대규모의 수의계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으로 우리나라 수의계의 위상과 수의학의 발전에 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수의사회
제22대 정영채회장 취임
및 제22대 집행부 구성**



서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제22대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121명중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회장으로 정영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를 통해 선출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김창렬 전 광주광역시지부장과 장묘성 전 대한수의사회 감사를 제22대 집행부 감사로 선출하였다.

지난 2008년 2월 28일(목) 수의과학회관에

직책	성명
교문 (41)	이길재, 정창국, 전동용, 김용희, 최병인, 이기정, 김형관, 정대연, 백영기, 윤여인, 김재완, 장인호, 조태순, 장경진, 주영환, 탁연빈, 윤병준, 이광태, 우기방, 김교승, 이기태, 정만호, 김진곤, 강철원, 최철순, 서병조, 김옥경, 조휴익, 김무강, 권학윤, 서창섭, 이동열, 상래홍, 이호식, 배경호, 박영수, 권춘수, 김찬홍, 어중원, 배상호, 이흥식
국가수의 자문위원 (16)	신광순, 박근식, 김순재, 남치주, 한홍율, 손봉환, 박종명, 김진구, 정종식, 최상호, 김선중, 강인구, 김창수, 강정부, 주희대, 권오경
명예회장	이우재
회 장	정영채
부회장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부회장 : 이각모 • 직능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동물임상 : 김영찬 - 반려동물임상 : 강종일 - 수의정책방역 : 임경종 • 지역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2) : 김동훈, 허주형 - 호남(1) : 김성완 - 영남(1) : 강삼순
지부장 (16)	서울 : 곽중권, 부산 : 정철규, 대구 : 백일조, 인천 : 허주형 광주 : 손해수, 울산 : 강병재, 경기 : 백충기, 강원 : 김동훈 충북 : 임영철, 충남 : 전무형, 전북 : 박은호, 전남 : 김성완 경북 : 강삼순, 경남 : 정기우, 제주 : 이의중, 군진 : 정기곤

직책	성명
위원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윤리 : 정병현 • 학술홍보국제협력 : 박응호 • 수의무 : 전병준 • 교육 : 서강문 • 방역·식품안전 : 노천섭 • 동물보호·복지 : 이승근
산하단체장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협회(회장 : 이승근) • 양돈수의사회(회장 : 이오형) • 양계수의사회(회장 : 하봉도) • 한국우병학회(회장 : 송회락) •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회장 : 허강준) * 질병진단연구회 자체검사원협의회 여성수의사회

수의사처방제 시행 목전에

축산물의 안전성의 확보와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수적인 제도이며,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제도인 사용 상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이 목전에 와 있다.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위하여 멀게는 지난 1988년 당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가

깝게는 2002년 의원발의를 통한 제도시행 노력, 2006년 자체연구용역 수행, 2007년 농림부 연구과제로 용역수행 등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올해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대책반을 만들어 초안을 만들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에 시행하기 위하여 제도·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동물약품의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각 참여주체별로 입장이 상이하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어 우리회 정영채 회장이 이의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 발효에 따른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정부에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교육을 주관하였으며, 동물보호감시관을 도와 동물의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위촉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위촉을 원하는 사 람들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법정교육이 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요업자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시설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실험동물분야에서는 동물실험시설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주한 동물 실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주하여 건국대

수의대 한진수교수님을 책임자로 국내 실험동물전문가(수의과대학 교수 등) 24명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전국 250여개의 동물실험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
취임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기윤
동물방역팀장 취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신임원장에 이주호 전 질병관리부장이 9월 16일자로 취임하였다.

신임 이주호원장은 건국대 수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1976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수산부) 축산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농림부 가축위생과장(CVO), 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및 질병관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원장 공석기간에는 직무대리를 맡아 온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원장

이주호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역원을 강한 수의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에 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기윤 동물방역팀장

기윤서기관이 임명되어 지난 9월 25일 취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의사(CVO, Chief of Veterinary

Officer)이다.

신임 장기윤팀장은 1979년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여 1983부터 2007년까지 15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농무성파견근무 1년, OIE 한국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건국대에서 수의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의한바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 등에서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률개정 이전에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 간의 협의를 통해 먼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고한바 있다.

현재 다수의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부족하여 판매 자체를 거부하거나 실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구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우리회 정영채회장이 약사회 원희목회장을 만나 약사회 각 시·도지부 및 각 시·군·구분회를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전문의약품공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아래)을 체결하였다.

이와관련 지난 4월 4일 약사회에서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분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우리회에서도 각 시·도지부에 양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약사회와 업무협약체결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의약품 수급 숨통 틈어



우리회에서는 지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아 지난해 9월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개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을 발

- 아 래 -

■ 업무 협약서

〈동물병원 대상 전문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동물의 진료를 위해서 동물용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동물용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전량을 전문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수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의사의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의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의 공급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동물진료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의 보호자들에게 원만한 동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축질병을 근절하고, 나아가 축산물 생산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동물병원 대상 전문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한 세부 협력사항을 협의·추진하고자 하며, 양 단체 산하 각 시·도지부 및 각 시·군·구분회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전문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에 합의하는 바이다.

2008. 4. 17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영채 /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일본수의사회 및 대만수의사회와의 동북아 수의공동체 설립을 위한 삼각교류 시작




냈거나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각 개별국가 혹은 권역별로 전문가의 교류를 위한 MRA(면허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고 있어 아시아지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개별국가들 혹은 권역별로 FTA의 체결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미, 한·EU 등 많은 FTA들이 협의를 끝

아시아 지역은 지역이 광대하고, 각 국가별로 사회문화적인 차이와 경제적인 차이가 광대하여 MRA 등의 단순한 추진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아시아수의사회가 수의사 및 수의학에 대

한 교류를 위한 민간국제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적으면서 아시아 수의학문분야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수의공동체의 설비를 목적으로 삼각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올해 11월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수의사회장이 회동을 갖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고,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대만에서 MOU의 체결과 2009년 11월 일본에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 아 래 -

1.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

2. 일 시

- 2008년 11월 16일 17:30

3. 장소

- 본 오사카 Regal Royal Hotel

4. 참가자

- 한국(정영채회장, 허주형부회장)
- 일본(아마네회장, 모도요시회장)
- 대만(Johnson 전 회장)

5. 협의 내용

- 1) 동북아3개국은 수의학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 2) 동북아3개국은 수의학 발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 3) 동북아3개국은 2009년 1월 6일 대만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모임을 한다
- 4) 동북아3개국은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3개국 협의체 조인식을 갖는다.
- 5) 개최국에서 대표자 3명에 대한 체재비는 부담한다.
- 6) 2010년도는 한국 혹은 대만에서, 2011년도는 한국 혹은 대만에서 개최한다.
- 7) 의장국은 개최국이 1년간 맡는다.